

무궁한 주의 은혜

The Eternal Love of the Lord

요한복음 13:5-1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6월 30일 설교

⁵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⁶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⁷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⁸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⁹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¹⁰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실수연발 베드로

오늘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좋아하시지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야곱이라면 신약에서는 단연 베드로입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둘 다 천방지축 까부는 게 우리하고 꼭 닮았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고 그저 우러러보기만 해야 하는 인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나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다.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인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야곱만 해도 이름부터 속인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더니 자라면서 형이 배고픈 걸 이용해 맏아들의 권리를 가로챘고 얼마 뒤에는 아버지의 축복마저 빼앗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에 살인이 날 뻔해 멀리 도망을 갑니다. 속이고 싸우고 빼앗은 인생인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롬 9:10-23).

형제간에 서로 아껴주고 도우는 집도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 현실은 안 그렇지요? 형제간에는 날마다 싸우는 게 일입니다. 애도 싸우고 어른도 싸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의 형제나 영의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에서는 열불이 날 때가 한 두 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걸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음에 듭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생애를 살펴보면 참 독특한 점이 많지만 그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이 바로 실수연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한 것도 물론 많지요. 그런데 실수가 더 돋보입니다. 덤병대는 게 보통이 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그렇지요?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발을 내밀고 가만있습니다. 주님이 어련히 알아 하실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다. “전 안 됩니다” 하고 버팁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좀 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차차 알게 될 테니 일단 발부터 내놓거라” 하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 하지 않고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버팁니다.

주님이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하고 나는 끝인데도?” 순간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뭔지 아직 모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술 더 뜹니다. “주님,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발만 하하지 말고 손하고 머리까지 씻겨 주세요.” 어린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이게 무슨 재롱입니까? 실수한 줄 깨닫는 순간 또 이렇게 금방 돌아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온 몸이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고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극과 극을 오간 삶

베드로의 생애는 실수연발의 생애입니다. 웃고 넘어갈 간단한 실수부터 그냥 둘 수 없는 심각한 잘못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고서도 아차 싶으면 바로 또 돌아섭니다. 대중목욕탕 여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탕에 가 보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좀 있지요? 뭐가 좋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의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실수하고는 조금 뒤 만회하고 점수 따고는 금방 또 까먹어 버리는데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립니다.

베드로가 정말 잘 한 한 가지가 신앙고백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선뜻 나서더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시몬아, 넌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시고는 “네 이름이 반석 아니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걸로 성이 안 차셨는지 “천국 열쇠도 내 너한테 맡기마”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순간부터 당신이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는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니” 했는데 “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꾸중한다는 말입니다. 말만 한 게 아니고 주님을 붙들고는 “그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고 단단히 나무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지요? “내 뒤로 물러가거라, 사탄아!” 방금 복 받았다 하시더니, 너는 반석이다 하시면서 거기 내 교회를 세우마, 너한테 천국 열쇠도 맡기마 하시더니, 이제는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사탄이 됩니까?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입니다. 천국 열쇠를 못 쓰게 하려고 온갖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습니까? 주님 변덕도 참 대단합니다만 베드로가 그만큼 들쭉날쭉입니다. 방금 엄청난 칭찬을 들어 놓고는 말 한마디 잘못 해 가지고 된통 혼이 납니다.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나서는 걸 좋아함

베드로는 나서는 걸 좋아합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일이 있지요?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쳤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제자들을 보다 못해 주님이 물 위로 걸어 배 있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열어 버렸습니다. 물 위로 걸어왔으니 유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다, 겁내지 마라” 하시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반갑게 맞이하면 될 텐데 별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오라고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하고 제가 물 위로 걷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물 위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와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갔지요. 몇 발자국은 정말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겁이 나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손을 잡아 건져 주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나선 덕분에 남들 못한 경험도 해 보았습니다만 괜히 나서 가지고 안 들었어도 될 꾸중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 영생 얻는 법을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하셨더니 이 청년이 돈이 워낙 많아 고민만 하다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봤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저렇게 어렵단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또 나섰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뭘 받게 될까요?” 주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열 두 보좌에 앉아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한 말씀 덧붙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다 버리고 나선 건 잘 했는데 은근히 바라는 그 마음을 들켜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더라 전해줍니다. 다른 제자는 “그래?” 하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요한을 데리고 즉각 달려가 보았습니다. 무덤에 가서도 요한은 밖에서 들여다보는데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 살펴 보았습니다 (눅 24:12; 요 20:6). 그래 놓고는 고개만 가우뚱하면서 돌아갔지요. 빈 무덤을 봤으면서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신 예수께 또 꾸중을 들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잘못

베드로의 실수 가운데 가장 큰 건 따로 있지요. 이걸 실수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잘못입니다. 뭘니까? 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랬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지르고 만 참 뼈아픈 잘못입니다.

이 잘못은 사실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너무나 괴로워 갯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동안 깨어 있으라고 세 사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잠만 잤습니다. 주님이 한 번 오셔서 셋 가운데 베드로만 꾸중하셨습니다 (마 26:40; 막 14:37). 셋 다 잤는데 꾸중은 베드로한테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꾸중을 듣고도 또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잠만 잤으니 무슨 좋은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뭘 했습니까? 칼을 휘둘렀다가 예수께 꾸지람만 들었지요. 제사장의 종이 귀만 날아갔기에 망정이지 만약 죽기라도 했다면 예수께서 공들여 훈련시키신 수 제자가 전도 한 번 못하고 끝장날 뻔했습니다.

예수께서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경고지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늘 이렇습니다. 저

만 잘났습니다. 그냥 “주님,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해도 될 걸 “남들은 주님을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넌 언제나 특별하지. 나도 안다. 그래서 오늘 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도망만 가겠지만 너는 나를 부인까지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쯤 하면 찌그러들어도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오히려 대답니다. “제가 주님하고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말투를 보니까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베드로를 바른 길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자숙해야 될 때 오히려 목에 힘을 주었으니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말했습니다. 만약 누가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하고 한 패지? 하고 물었다면 아마 “그렇다!” 하고 순교했을지 모르지만 아주 하찮은 여종 하나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이 사람도 예수하고 같이 있었어요”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 아닌데?” 해 버렸습니다. 한 번 부인하니 두 번은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성을 간다 하고 맹세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지옥에라도 간다!

발을 씻어주심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끝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준비하신 떡과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끝낸 다음 예수께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주님이 묻고 베드로가 답하는데 주님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 말씀에 빠가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나서기 좋아하는 너 아니냐? 지고는 못 사는 너니까 나를 사랑하는 일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해야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만 대답합니다. 남보다 더 잘나야 했던 나, 좀 튀고 싶었던 이전의 베드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처음 두 번은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그런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감히 그렇게 답하지 못하고 주님을 필레오 한다고, 그저 평범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많이 낮아졌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도 필레오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도 필레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왜 세 번 물으셨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것도 세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을 세 번 거꾸 확인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못 믿어 그러신 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세 번을 거꾸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신 거지요.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사명을 주신 일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일입니다. 왜 발을 씻겨 주십니까? 이미 목욕을 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차피 온 몸이 더러울 거니 발도 씻을 필요가 없지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온 몸을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큰 잘못을 저질러 발을 더럽혔을 때 그 발까지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하면서 버티던 지난날의 베드로가 아니지요. 암전하게 발을 내 놓은 베드로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목욕

베드로가 목욕은 그럼 언제 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주님 제자로 부름을 받을 그 때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호숫가에 많이 모였습니다. 처음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주님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배 하나를 골라 타시고는 그 배에 앉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날 고기잡이는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앉아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베드로도 열심히 들었겠지요. 주님 바로 곁에 있었으니 호숫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잘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씀을 전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도 막 다 씻은 참인데 다시 던지라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줄곧 뭔가 느낌이 있었겠지요.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얼른 동업자들을 불러 고기를 담았는데 배 두 척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 말고도 동생 안드레가 있었고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형제도

있었고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도 있었습니다. 그 다섯 가운데 베드로가 나셨습니다. 이 때부터 나서는 게 주특기가 된 것 같은데 엄청난 고기가 잡힌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조금 전까지 말씀도 들었으니 이 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이 분 앞에 어떻게 감히 서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겁낼 것 없다.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잡을 것이다.”

죄를 용서하시고 사명까지 맡겨 주신 거지요. 이 말씀 한 마디로 베드로는 목욕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물로 베드로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엡 5:26). 실수연발 베드로의 인생은 다 이 이후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천방지축 실수연발은 다 발에 먼지를 묻히는 정도입니다. 주님이 다 씻어 주십니다. 때로 꾸중하시고 사탄이라 하시면서 크게 혼도 내셨지만 주님은 한 번 목욕시켜 주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세 번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기신 것은 오래 전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발에 묻힌 수많은 때도 주님이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함없는 첫사랑

베드로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렸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책임까지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천국 열쇠도 맡겨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을 때는 “사탄아” 하고 엄중하게 꾸중하셨는데 베드로가 정말로 사탄이 되어 그러신 게 아니라 그런 소리 하면 사탄이 되니까 사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런 경고도 주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서 믿음이 적다고 꾸중도 들었지만 그 꾸중 역시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믿으면 된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경고의 말씀도 네가 잘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네가 뭐나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나고 만다 하시는 경고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까불다가 전에 잘한 일까지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건 다 용서해 주시고 잘한 건 하나도 안 빼고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까먹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베드로는 정말 실수연발의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정말 한결같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잘 할 때는 칭찬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더 많은 일도 맡기셨습니다. 잘못 할 때는 따끔하게 혼도 내시면서 더 잘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주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 따로 만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처음 호숫가에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잘 감당하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수시로 잘못을 돌이켰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뒤에는 눈물의 회개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회개하지요. 회개해야 삽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온 것은 베드로의 결심이나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기 전에 사탄이 제자들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썼다 하시면서 주님 당신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눅 22:31-32). 베드로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백성으로 주님 제자로 남은 것은 결국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덕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요 13:1).

우리 위한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 덕을 많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것만 보았다면 “주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그 정도 알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안 됩니다” 하고 버티는 바람에 주님이 발을 씻기신 일이 곧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모르면 모른다 합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못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신지 좀 가르쳐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 문제다 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 15:15). 주님,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본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마 18:21). 덕분에 주님께서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편적인 일보다 더 많은 것을 베드로의 생애 전체를 통해 배웁니다. 뭐니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그냥 안 두시고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또 때로는 꾸지람과 경고로 하나하나 챙겨 주시는구나, 그걸 배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첫 순간에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겁낼 것 없다, 앞으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거다,” 그 말씀에 베드로 인생이 다 담겼습

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니 오순절 이전의 베드로하고는 다르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 베드로가 많이 달라졌지요. 말씀도 담대하게 전하고 놀라운 지도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실수연발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도 엄청난 잘못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을까 겁이 나 밥을 먹다 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따끔하게 혼도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못까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 용서 받았습니다. 부활 이후의 갈릴리가 아니라 처음 제자로 부르신 그 갈릴리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무궁한 주의 은혜

겉만 보면 실수연발, 천방지축의 생애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베드로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주 예수의 은혜, 무궁한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참 생명까지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은혜 말고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궁한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고 끝이 없으니 무한에 속한 은혜입니다. 무한에 속했으니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은혜지요. 그걸 보여주는 생애, 아니 그런 은혜로 푹푹 뭉쳐있는 생애가 베드로의 생애다 보니 베드로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수제자는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반장은 못 해 봤지만 실수연발이랑 천방지축은 닮았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며 생사의 혈투를 벌이시는데 저는 잠만 쿨쿨 자고 있었지요. 그래놓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도 휘두릅니다. 주님 저도 물 위로 가게 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주님께 드리지요. 우리도 나서는 것 좋아하고 주님이 발 내 놓으라 하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못 하겠다 버티고 믿음대로 잘 가다가 갑자기 의심이 생겨 물에 빠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주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했다가 사탄 소리까지 듣습니다. 십자가를 주님에게도 안 지우지만 나도 지기 싫어하지요. 그러다가 또 시키는 것 조금 해 놓고는 생색내기 바쁩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늘 나만 잘났지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것도 배워야지요. 솔직 담백합니다. 거짓이 없고 꾸밈 줄도 모릅니다.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가도 잘못된 줄 알면 금방 회개합니다. 금방 하지만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점 배우기 전에 실수 연발 베드로의 생애에 담긴 주 예수의 은혜, 무궁한 주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도 은혜 하나면 됐는데 우리라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권수경 목사)